

#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맞는걸까? :: 아하스페르츠의 단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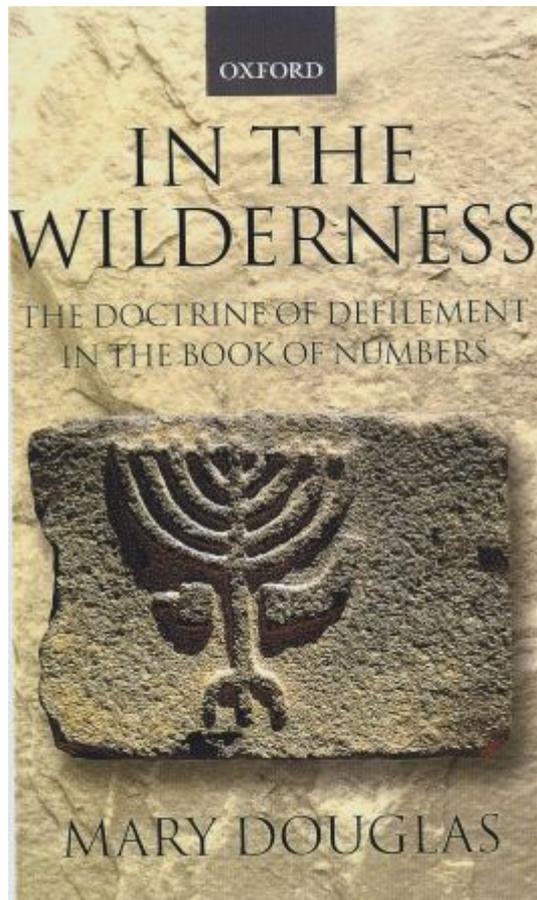
 [kibaek.tistory.com/546](http://kibaek.tistory.com/546)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맞는걸까?

성서와 UFO 2020. 7. 28. 07:05

민수기(民數記)는 구약성서의 네 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의 인구조사에 기인한다.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베미드발'(במדבר)인 것이나 영어로 '넘버스'(The Book of Numbers)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니, 모세가 광야에서 징집할 병사들을 파악하기 위해 장정들의 머리 수를 세었기 때문이다.

말한 대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미드발'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워낙에 많은 인구조사 기록과 희생 제물 수 등의 숫자가 나오는 까닭에 '70인역 성서'에서는 '숫자들'이라는 뜻의 희랍어 '아리트모이'(Ἀριθμοί)를 붙였고, 이것이 다시 중국어 성서로 옮겨질 때 민수기가 되었는데, 한역 성서 역시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옥스포드 판 '민수기' 해설

이번에 말하려는 것 역시 민수기에 나타난 숫자로서, 우선은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맞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실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 결과는 오래 전부터 그 진실성을 의심받아 왔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여호와와 명으로 행한 인구조사 결과 징집 가능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 숫자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레위인(그들은 여호와와 성막 관리직, 말하자면 당번병으로서 징집에서 제외됐다)은 제외된 것이므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광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인의 인구는 2백만 명이 넘는다.

그 2백만 명의 인구가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40년 간을 헤맸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이해가 불가능한 숫자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이동만을 했다. 유목도 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가축이라고는 출애급 시절 가지고 나온 것이 전부였다. 또한 그곳 광야는 초지가 과소하고 수렵할 동

물도 서식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그 많은 인구가 40년 간이나 생활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 이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짓말'이다.





성서에서 '광야'라고 불린 시나이 사막



인공위성에 본 '광야'. 올해 4월 NASA에서 촬영한 시나이 반도 모습이다.

그래서 이를 사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바, 그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나타난 60만 3,550명이 장정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 인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민수기 11장 21절의 내용으로, 그곳에서 모세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또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과소함을 강조한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민수기 11:21)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신명기 7:7)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히브리인 여성 전체의 해산을 단 두 명의 산파가 맡았다는 것도 그들의 숫자가 과소했다는 방증으로 이용된다.

두 번째는 민수기 3장 43절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니 일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이만 이천 이백칠십 삼명이었더라.(민수기 3:42-43)

장자가 22,273명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가 22,273명이라는 뜻인 바, 그 어머니로부터 다섯 명의 형제가 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111,365명으로, 여기에 출애급 당시의 인구를 합하면 약 15만 정도가 총인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창세기 요셉 당시의 이민자였던 70명